

# 광주·전남, 정부 산학 R&D 예산 4.1% 불과

58.8% 집중된 수도권과 14배 차이... 영남은 20.4%

송갑석 의원 국감자료... 지방대 인력난·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원인

광주·전남 지역의 정부 산학 R&D(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전국 대비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두 부처에서 집행한 산학 R&D 총 예산액 13조8000억원 가운데 4.1%인 570억원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8.8%의 예산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약 14배 적은 수치다.

(1021억원)가 투입됐고, 영남권은 20.4%(2803억원), 충청권 10.3%(1412억원), 강원·제주에는 3.2%(434억원)의 산학 R&D 예산이 집행됐다.

현장 연구자들은 '지방대학의 인력난, 연구환경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지역불균형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학들은 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소외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역 산학 R&D 예산은 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배분돼 지역산업과 호흡을 맞추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대학의 'R&D 역량 부족, 정부 R&D 지원 기회 감소, 연구



송갑석 의원

실적 감소대학원생 감소, R&D 수준 담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방의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무조건적 예산증액이 아닌 수혜대학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수급해 기업에 연계하는 등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미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기술 특히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이미 확보한 특허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폴리이미드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12건의 국내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는 단 한건도 없어 한일 특허 경쟁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송 의원은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등 경쟁국가 및 기업의 핵심특허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국이 2시간대 인데 전라선만 3시간"

주승용 의원 국감 지적

고속철도(KTX)가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했지만, 전라선만 소외돼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은 전라선인 여수권 뿐"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72km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가 올해 1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



주승용 의원

업으로 선정됐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의 철도 승객은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기준으로 3.7배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수까지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km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태풍 피해 벼 잠정등외로 매입해 달라"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쓰러지고(도복), 벼가 하얗게 변하거나(백수), 까맣게 변하고(흑수), 이삭에서 낱알에 싹이 트는(수발아)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정부가 잠정등외로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전남지역 벼 피해 면적은 2만1873ha에 이른다. 흑·백수 9722ha, 수발아 5334ha, 도복 6816ha 등이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가 많은 것은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의 바람이 순간풍속 35~45%에 달한데다 잇따른 잦은 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를 입은 벼는 식량으로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품위가 떨어져 공공비축미곡이나 시장 출

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매입단가도 크게 인상에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 1등급 가격의 65%(40kg당 4만3580원) 수준으로 잠정등외B는 55%(3 6870원)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피해벼가 일반벼와 혼합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으로 수확기에 이른 벼가 큰 피해를 입어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상심이 크고,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차기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태풍으로 인한 백수, 흑수,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 정부가 전량 잠정등외로 매입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2016년 잦은 강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잠정등외로 매입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인의 날 기념식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식전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지방은 '그림의 떡'

전남도 등 지정 조건 전무

이개호 의원 "균형발전 역할"



이개호 의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 세부 조건이 과중해 지방은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세부 조

건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과 배후단지 사이의 이격거리(3km 이내) 등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은 최소한의 역량조건인 연구개발 인력 300명, 연구개발 투자

210억원, 특허출원 115건, 기술이전 20건 등을 매년 충족하는 핵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핵심기관 배후단지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3km 이내) 규정 등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기도와 광역시 등을 뺀 지방은 핵심기관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면적이 넓어 3km로 제한하

면 특구 지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결국 현재의 강소특구 지정 조건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조건으로 현 조건이 지속하면 이미 연구인프라가 확립된 곳만 혜택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은 기존특구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과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을 지정, 육성하는 사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최우수'

전남도는 2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사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도별로 매년 실시한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를 점검해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왔다.

평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31개 자율편성 사업 평가를 준비하고 올해 1, 2월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를 거쳐 자체평가를 마무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사랑스러운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 전형일정 ·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